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참고문헌 인용현황*

이향련**·전상희***·장경화***·이명희***·박영미***
지은선***·이종을****·이상복***·노인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문의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잣대는 그 분야에 속해있는 연구자의 연구물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물이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 발표될 때 연구자는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다른 연구들과 결과를 비교하며, 더욱 발전된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에 참고하거나 내용을 인용한 문헌의 목록을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컴퓨터 검색엔진의 발달로 국내외 학술저널이나 학위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database가 있으며, 도서관 상호대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연구자가 원하는 문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검색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검색에 실패하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어려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원본과 표기가 다르거나 약어사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표기양식이 다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참고문헌을 표기하는데서 발생하는 오류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표기의 오류는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확보하

기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실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연구물 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논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어 결국 논문이 게재된 간행물에 대한 신뢰성과 질도 보장받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각 잡지마다 정해진 투고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방법으로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내용인용의 경우도 원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독자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의 정확한 표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외국의 경우 Eichorn과 Yankauer(1987)가 3개의 학술지(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Medical car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를 대상으로 출처표기오류와 내용인용오류를 조사하였으며, Benning과 Speer(1993)는 12개의 의학연구지를 대상으로 총 오류율과 오류의 정도를 조사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의학 및 치의학 연구지 문헌을 대상으로 오류율을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Doms, 1989; George & Robbins, 1994; Hansen & McIntire, 1994; McLellan, Case, & Barnett, 1992; Stull, Christina, & Quinn, 1991), 간호학 관련 연구만 살

* “이 연구는 2004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 임” (khu-20031035)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경희대학교 간호학 박사과정(교신저자 전상희 E-mail: winter-1207@hanmail.net)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강사
투고일 2005년 3월 28일 심사외리일 2005년 4월 1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10일

피보더라도 Schulmeister(1998)가 세 개의 간호저널에서 무작위로 60개의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오류율을 보고한 바가 있고, 17개의 간호학 연구지에서 112개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실시한 Foreman과 Kirchhoff(1987)의 연구가 있었으며, Taylor(1998)는 간호학술지(Nursing Research)에서 총화표출한 262개의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전반적인 오류율과 함께 오류의 정도를 대오류(major error)와 소오류(minor error)로 나누어 보고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학술지의 참고문헌 인용현황을 보고한 연구는 가정의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2편과 대한마취과학회지, 주요 산부인과 학술회지, 한국의류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각 1편씩 총 5편이 보고 되어 있으나 간호학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간호학계에서는 1970년 대한간호학회지 창간을 시작으로, 산하의 7개 분야별 학회에서 각 학술지를 창간하여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그 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간호학 관련학술지의 참고문헌 인용현황에 대한 분석이나 정확성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대한간호학회지는 성인간호학회지와 함께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이며, MEDLINE에도 등재가 확정되어 이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서 한국 간호학의 학문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명실상부한 한국 간호학의 대표 학술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간호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참고문헌 인용현황을 분석하고, 표기의 정확성을 조사하여 국내간호학회지의 양적인 수준과 함께 질적 수준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한국의 간호학술지가 SCI에 등재될 수 있는 세계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관련부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1년 APA 5th edition 투고규정에 의해 대한간호학회지 투고규정이 개정된 2001년 이후 2002년 1월호(32권 1호)부터 12월호(32권 7호)까지 실린 연구논문 93편의 참고문헌목록에 나타난 2,334개 문헌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용시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기록된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참고문헌 인용 현황 및 검색률을 확인한다.

- 2)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조사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02년도에 발간된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참고문헌 인용현황과 표기의 정확성 정도를 조사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2001년 APA 5th edition이 발표되고 같은 해 4월에 변경된 대한간호학회지 투고요령에 따라 발표된 논문들 중 연구자와 심사자간에 있어서 과거 투고규정과 혼선 우려가 최대한 배제되어진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간된 대한간호학회지(32권 1호부터 32권 7호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참고문헌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참고문헌 표기시 오류 여부의 판단은 2001년에 개정된 대한간호학회지의 현행 투고규정(APA 5th edition, 2001)과 선행연구(Hinchcliff, Bruce, Powers, & Kipp, 1993; Russell & Aud, 2002)의 문헌을 근거로 본 연구팀이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였다. 체크리스트는 표기양식의 차이에 따라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단행본, web-site의 네 종류로 개발되었고, 정기간행물과 학위논문은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오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항목들을 제외한 미검색 체크리스트 두 종류가 추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정기간행물의 항목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검색된 정기간행물

- (1) 학회지 투고규정에 나타난 표기순서와 각 항목 사이의 구두점.
- (2) 저자명
 - ① 저자의 성을 다르게 기재한 것
 - ② 이니셜 순서가 다른 것
 - ③ full name을 사용한 것
 - ④ 이름 사이의 구두점과 형식이 다른 것

- ⑤ 공동저자의 연결부호가 다른 것
 - ⑥ 저자 6명 까지는 모두 표기하고 그 이상은 et al.로 연결한 것
 - ⑦ 저자 순서가 원본과 다른 것
 - ⑧ 철자가 다른 것
- (3) 출판 연도
- ① 원본과 다른 것 ② 기재 형식이 다른 것
- (4) 제목
- ① 원본과 다른 것 ② 부제가 다른 것
 - ③ 대소문자 표기가 다른 것 ④ 철자가 다른 것
- (5) 간행물명
- ① 원본과 다른 것 ② 기울이기 안한 것
 - ③ 약어사용이 기준과 다른 것
 - ④ 약어사용 시 철자나 순서가 다른 것
 - ⑤ 약어사이에 부호를 쓴 것
 - ⑥ 약어의 각 단어 첫 자를 대문자로 하지 않은 것
 - ⑦ full name 사용 시 철자가 다른 것
- (6) 권(호)
- ① 원본과 다른 것 ② 권 또는 호 누락
 - ③ 권을 기울이지 않은 것 ④ 형식이 다른 것
- (7) 페이지
- ① 원본과 다른 것 ② 기재가 누락된 것
 - ③ 형식이 다른 것

2) 미검색 정기간행물
 검색된 정기간행물 항목중에서 (1) (2) ③④⑤⑥ (3) ② (4) ③ (5) ②③⑤⑥ (6) ②③④ (7) ②③

3) 검색된 정기간행물은 Taylor(1998)의 문헌을 근거로 대오류(major error)와 소오류(minor error)로 구분하였다.

가. 대오류 : 검색된 정기간행물 항목중에서 (1) (2) ①② (3) ① (4) ① (5) ① (6) ① (7) ①

나. 소오류 : (2) ③④⑤⑥⑦ (3) ② (4) ②③④ (5) ②③④⑤⑥⑦ (6) ②③④ (7) ②③

4. 자료수집방법

게재된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원문을 입수하기 위해 MEDLINE, KoreaMed, 국립중앙도서관, 보건연구정보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학연구정보센터, 각 대

학의 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원문입수가 불가능한 것은 서지사항을 확인하였으며, web-site는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1.0)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 1) 참고문헌 인용현황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인용시 오류현황은 오류의 횟수에 관계없이 체크리스트 각 항목의 오류 유무만으로 표기하였으며 연구자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참고문헌의 오류 표기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 2회 이상 중복 check 하였다.
- 3) 항목별 오류정도의 차이를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4) 인용되어진 국외문헌과 국내문헌간의 오류 정도의 차이는 χ^2 -test로 비교하였다.
- 5) 참고문헌수와 오류정도와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한간호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연구결과를 다른 관련 학술지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참고문헌 인용시 정확도의 판단기준이 된 대한간호학회지 투고규정 준수여부는 현행 투고규정적용 기준 시점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오류의 정도를 다른 년도에까지 확대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II. 연구 결과

1. 참고문헌 인용현황 및 검색률

1) 참고문헌의 인용현황

분석 대상이 된 2002년도에는 32권 1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총 7권의 대한간호학회지가 발간되었는데, 1호부터 6호까지는 한글판이며, 7호는 영문판이다. 모두 93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어 한 권당 평균 논문 편수는 13편이었으며, 인용된 참고문헌이 총 2,334개로 논문 한 편당 평균 25개의 참고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참고문헌은 정기간행물이 1,531개(65.6%)로 가장 많았고, 학위논문 279개(12.0%), 단행본 453개

(19.4%), web-site 26개(1.1%), 기타 45개(1.9%)로 나타났다. 기타로 구분된 45개는 미발표된 연구이거나 포스터발표, proceeding 등으로 원문의 입수나 검색이 불가능하여 서지사항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였다.

국내의 문헌의 인용빈도를 살펴보면, 정기간행물의 경우 국외문헌(1,034개)이 국내문헌(497개)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국내 정기간행물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대한간호학회지였고, 국외 정기간행물 중에서는 Nursing Research로 나타났다. 학위논문은 국내 246개, 국외 33개로 국내학위논문 인용이 8배정도 많았고, 단행본의 경우는 국내 158개와 국외 295개로 국외문헌이 약 2배정도 많았으며, web-site와 기타는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았다<Table 1>.

2) 인용 참고문헌의 검색가능률

정기간행물과 학위논문, web-site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원문입수나 서지사항이 확인된 경우는 검색된 문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검색 문헌으로 분류하였다. 단행본은 모두 453개로 국외단행본인 경

우 원전입수나 서지사항 확인이 쉽지 않은 점, 국내 단행본인 경우 참고문헌 목록 작성시 영어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 원전이 한글로 기재되어있는 것과 일치여부 및 오류판단이 쉽지 않은 이유로 제외하여 나머지 1,836개를 검색하였다.

전체 참고문헌 중 단행본을 제외한 1,836개의 문헌 중 1,539개의 문헌이 검색되어 83.8%의 검색률을 나타내었으며, 정기간행물의 경우 국내문헌이 85.7%의 검색률을 나타내어 86%인 국외문헌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학위논문은 국내가 79.6%의 검색률을 나타낸 데 비해, 국외의 경우는 35개중 1개의 논문만이 검색되었다. web-site는 모두 검색되었다<Table 2>.

3) 참고문헌의 발표년도

인용된 참고문헌을 발표년도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1990년대(1990~1999)의 문헌으로 인용된 총 참고문헌 2,334개 중에서 57.0%인 1,330개였고, 미분류된 10개는 web-site 인용으로 연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1> The information contents of references

Vol(No)/ No. of article	Journal		Dissertation		Book		Web-site	Etc.	Total(%)
	domestics	abroad	domestics	abroad	domestics	abroad			
32(1) / 10	34	102	23	5	16	35	3	7	225(9.6)
32(2) / 11	61	105	45	5	17	35	1	2	271(11.6)
32(3) / 12	79	110	30	0	28	37	4	6	294(12.6)
32(4) / 13	65	148	48	3	24	43	3	9	343(14.7)
32(5) / 15	115	163	34	11	18	39	0	5	385(16.5)
32(6) / 16	98	130	52	4	31	51	9	11	386(16.5)
32(7) / 16	45	276	14	5	24	55	6	5	430(18.5)
Sub-total / 93	497	1,034	246	33	158	295	26	45	2,334(100.0)
Total	1,531(65.6)		279(12.0)		453(19.4)		26(1.1)	45(1.9)	2,334(100.0)

<Table 2> The rate of retrieval on references

	Journal (n=1,531)		Dissertation (n=279)		Book (n=453)		Web-site	Etc.	Total(%)
	domestic	abroad	domestic	abroad	domestic	abroad			
No. of references	497	1034	246	33	158	295	26	45	2,334(100.0)
No. of retrieval(%)	426(85.7)	890(86.0)	196(79.6)	1(3.0)	0(0.0)	0(0.0)	26(100.0)	0(0.0)	1,539(83.8)
Total No. of retrieval(%)	1,316(86.0)		197(70.6)		0(0.0)		26(100.0)	0(0.0)	1,539(83.8)

<Table 3> The distribution of references according to published years

Published years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Not classified	Total
n	2	1	5	32	153	509	1,330	292	10	2,334
(%)	(0.1)	(0.0)	(0.2)	(1.4)	(6.6)	(21.8)	(57.0)	(12.5)	(0.4)	(100.0)

인용된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단행본은 1934년에 발간된 Mind, Self and Society라는 책이, 정기간행물은 1938년 Nursing in China라는 제목으로 American Journal of Nursing에 게재된 것이었다 <Table 3>.

2. 참고문헌 인용오류 현황

1) 논문별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32권 1호에서 7호까지 게재된 93편의 각 논문에 대한 참고문헌의 전체적인 오류를 살펴본 결과, 참고문헌을 영문으로 표기하지 않은 논문이 2편, 참고문헌 인용의 최대허용한도인 30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가 15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참고문헌 인용수는 48개이었다. 또한 각 참고문헌의 첫 행 이외에는 2칸 들여 쓰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분적으로 오류가 나타난 것이 5편, 저자의 성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가 31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저자인 경우 연대순으로 최근 것이 먼저 오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15편이었으며 같은 참고문헌이 한 목록 안에 2회나 들어간 경우가 2편의 논문에서 나타났다.

검색한 참고문헌은 투고규정 준수여부와 원문이나 서지사항내용과의 정확도를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미검색 문헌은 투고규정 준수여부만을 항목으로 하는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2,334개 문헌중 원문입수와 검색이 불가능한 기타 문헌 45개를 제외한 2,289개의 전체 참고문헌 중에서 투고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267개로 11.7% 이었고, 이를 제외한 2,022개(88.3%)는 오류의 정도에 관계없이 한 항목이상의 오류를 나타내었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오류율은 90.7%로 나타났으며, 이중 국내 정기간행물의 오류율은 425개(85.5%)로 국외 오류율 964개(93.2%)보다 낮았다. 학위논문의 오류율은 210개(75.3%)로 나타났는데 국내 학위논문이 196개

<Table 4> The rate of error on references

Categories	Journal (n=1,531)		Dissertation (n=279)		Book (n=453)		Web-site (n=26)		Total (n=2,289)
	domestic	abroad	domestic	abroad	domestic	abroad	domestic	abroad	
No. of references	497	1,034	246	33	158	295	17	9	2,289
No. of errors (%)	425 (85.5)	964 (93.2)	196 (79.7)	14 (42.4)	133 (84.2)	264 (89.5)	17 (100.0)	9 (100.0)	2,022 (88.3)
Total No. of errors (%)	1,389(90.7)		210(75.3)		397(87.6)		26(100.0)		2,022(88.3)

<Table 5> The rate of error on retrieval research journal

(N=1,316)

Categories (n)		Reference of domestic:abroad		Total(n)	Rate (%)
		domestic(n)	abroad(n)		
Major error	Name of author	9	148	157	11.9
	Published year	9	16	25	1.9
	Title	78	116	194	14.7
	Name of journal	4	6	10	0.8
	Volume(No)	16	75	91	6.9
	Page	53	70	123	9.3
	Sub-total		145	339	484
Minor error	Error of writing order & form	100	152	252	19.1
	Name of author	194	383	577	43.8
	Published year	2	4	6	0.5
	Title	168	254	422	32.1
	Name of journal	17	556	573	43.5
	Volume(No)	235	606	841	63.9
	Page	4	41	45	3.4
Sub-total		720	1,996	2,716	200.3

(79.7%)로 국외 학위논문 14개(42.4%) 보다 오류율이 높았다. 단행본의 오류율은 87.6%로 국내 133개(84.2%)와 국외 264개(89.5%)로 비슷했고, web-site는 26개 문헌 모두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2) 항목별 오류

총 1,531개의 전체 정기간행물 중 원문 입수후 참고문헌목록과 원문의 대조가 가능한 1,316개의 정기간행물을 대오류와 소오류로 분류하였다. 오류체크시는 편당 1개 이상의 오류가 발생된 경우에도 오류 발생수 모두를 체크하여 편당 오류수는 2~3개 이상인 경우도 많아 전체 오류수가 문헌의 숫자보다 많았다<Table 5>.

대오류는 1,316개의 전체 정기간행물 중에서 484건이 발견되어 36.8%의 오류를 나타내었다. 이 중 제목이 원본과 다른 오류가 194건(14.7%)으로 가장 많았고, 저자이름의 성이 틀렸거나 이니셜순서가 틀린 것이 157건(11.9%), 페이지 기재 시 오류가 123건(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오류는 2,716건(200.3%)이 발견되어 참고문헌 1개당 평균 2개의 소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는 권의 표기 시 기울이기를 하지 않은 오류가 841건(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자명에서 577건(43.8%), 간행물명을 약자로 기재하지 않은 오류 573건(43.5%)의 순이었다.

3) 국내·국외 문헌의 오류정도 차이

총 1,531개의 정기간행물 중 오류를 나타낸 정기간행물 1,389개를 분류한 결과 오류정도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오류수는 국내 425건(30.6%), 국외 964건(69.4%)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따라서 정기간행물의 경우 국내문헌을 인용할 때보다 국외문헌 인용시 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위논문, 단행본, web-site에서는 국내·외에 따른 오류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국내문헌이나 국외문헌을 인용할 때 범하는 오류가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6>.

4) 참고문헌수와 오류정도와의 상관성

참고문헌수와 오류정도는 약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93, p=.000).

5) 인용된 문헌의 종류 분석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의 종류는 정기간행물이고, 국외 문헌 중에서는 Nursing Research가 46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참고문헌 목록에 Nurs Res로 정확한 약어를 기재한 경우는 20회(43.5%)이고, 잘못 기재된 경우가 26회(56.5%)였는데 Nursing Research로 full name을 기재한 경우가 21회, Nursd Res 1회, NR로 기재한 경우가 3회, N. R.으로 기재한 경우가 1회였다.

국내 정기간행물의 경우 인용 횟수는 총 123회로 논문 1편당 평균 1.3회 인용된 대한간호학회지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그러나 J Korean Acad Nurs로 정확한 약어를 기재한 경우는 60회(48.8%)였고 나머지 63회(51.2%)에서 19종류의 다양한 오류가 나타났다.

IV. 논 의

그동안 이루어진 국내외의 관련 연구는 주로 참고문헌 인용현황에 대한 연구와 참고문헌 인용오류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으며, 오류에 대한 연구는 다시 인용표기오류와 내용인용오류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참고문헌 인용현황과 참고문헌 인용오류중 인용표기오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인용현황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Seong, Lee와 Yu(1994)는 한국의류학회지 5개년에 발간된 논문에 나와 있는 2,692개의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참고문헌의 언어, 종류, 나이,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많이 인용된 참고문헌이 학술지-단행본-학위 논문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았는데 이는 학술지를 통해 학문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고 받아들여려는 바람직

<Table 6> The difference of the rate of error on reference between domestic and abroad

Categories	No. of error(%)			x ²	p
	domestic	abroad	total		
Journal	425(30.6)	964(69.4)	1,389(100.0)	32.837	.000
Dissertation	196(93.3)	14(6.7)	210(100.0)	8.168	.147
Book	133(33.5)	264(66.5)	397(100.0)	5.721	.455
web-site	17(65.4)	9(34.6)	26(100.0)	2.015	.733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의 나이(저자가 논문을 기술한 해에 출판된 문헌이 0년)를 보면 최근 10년 이내의 나이인 것이 42.5%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 이후의 문헌이 69.8%를 차지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이는 최근에 발표되는 논문의 수가 늘어난 점과도 관계가 있고, 연구의 방향이 새로운 문제나 관심을 따라간다는 소위 최신효과나 첨단효과라는 것으로 특히 간호학과 같이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학문인 경우 연구의 영역이나 경향도 이에 따라 급변하는 역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최근의 문헌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Nam, Eo와 Hwang(1993)의 가정의학회지 창간호부터 11년간 실린 연구논문 245편 전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 편의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수가 평균 21.7개, 그 중 국내문헌은 7.4개 국외문헌은 14.4개이며, 참고문헌 중 정기간행물은 평균 16.8개, 단행본은 평균 4.7개를 인용하였으며, 가정의학회지가 논문 한 편당 평균 1.3개가 인용되어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분석하여 보고하였는데 정기간행물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그중 국외문헌을 더 많이 인용하며, 각각 논문이 게재된 간행물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은 본 연구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대한간호학회지가 가정의학회지보다 참고문헌을 더 많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을 살펴본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원저에 인용된 참고문헌에서 무작위 추출한 100개를 대상으로 한 Byeon(1996)의 연구에서는 전체의 71.4%, 1997년 1년간 발간된 국내 주요 산부인과 학술회지 4종을 각각 15편씩 총 60편의 논문을 무작위 추출하여 원전의 입수가 가능하였거나 서지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1,060개 참고문헌을 대상으로 한 Mo, Kim과 Kim(1999)의 연구에서는 평균 56.0%의 오류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타 45개를 제외한 참고문헌 2,289개를 대상으로 88.3%의 오류율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오류로 인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단순히 오류율을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투고요령도 동일하지 않고, 오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며 이 중에서 중대한 오류와 사소한 오류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나에 따라 해당 항목이 달라져 오류율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 이용된 참고문헌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고

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의 오류정도를 나누는 경우 연구자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Doms(1989)는 주어진 서지사항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원전을 찾을 수 없는 대오류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중오류 및 소오류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Hinchcliff 등(1993)은 대규모의 오류로 (a) 저자명의 생략 또는 잘못표기, 또는 잘못된 약자; (b) 연구논문, 단행본의 제목이나 chapter 제목을 잘못 표기한 것; (c) 학술지명을 잘못 표기하였거나, spelling이 틀린 것; (d) 잘못된 권/호, 출판년도, 또는 인용 페이지; (e) 발행 판수를 잘못 쓴 것을 포함하고, 소규모의 오류에는 (a) 저자명의 구분을 위한 표시를 잘못된 것; (b) 소제목, 인용구, 전치사를 기입하지 않은 것 등의 소규모의 제목 오류; (c) 페이지를 잘못 기입; (d) 편집자, 발행자 또는 발행장소 또는 철자의 오류를 포함한다고 분류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투고규정을 구체적으로 모두 적용하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는데, 각 문헌의 항목이 다르므로 대오류와 소오류의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이의 분류기준으로는 다른 학술지에서의 분류기준과 함께 연구자들이 실제 실시한 참고문헌의 검색과정에서 발생했던 오류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참고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하여 검색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오류의 항목으로는 저자이름의 성이 틀렸거나 저자의 이니셜 순서가 틀린 것, 출판년도나 제목, 간행물명, 권이나 호 그리고 페이지가 원본과 다른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총 1,316개의 정기간행물 중에서, 484건(36.8%)의 오류를 나타내었다. 앞서의 Byeon(1996)의 연구에서도 대·중·소 오류를 나누었는데 제 1저자의 성, 잡지의 권수와 발간연도, 페이지 등에 누락이 있는 경우와 논문 제목, 간행물명이 누락된 것을 대오류로 하여 37.3%의 오류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볼 때 오류의 정도를 분류하는 항목이나 오류율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Mo 등(1999)의 연구에서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등 주요 단어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는 경우, 잡지명을 공인된 약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고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오류를 조사한 결과로 전체 56%의 오류를 보여 본 연구에서 전체 대·소 오류를 포함한 88.3%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소오류로 분류된 항목에서 가장 높은 35.8%의 오류를 나

타낸 권(호) 표기시 권을 기울이기 하지 않은 것이나 대 소문자나 구두점의 오기 등은 실제 검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 이어서인지 다른 연구에서는 오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류의 정도에 관계없이 한 개 이상의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본 연구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정기 간행물의 대오류율 36.8%가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타당한 수치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다른 연구결과나 외국의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로 오류율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류로 판단한 항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표기에 있어 특히 제1저자명에 대한 오류는 참고문헌 목록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며(Taylor, 1998), 비록 인용된 저자명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검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인용된 저자들과 그들 저서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인용된 저자의 다른 연구물을 찾는데 장애가 된다. Hinchcliff 등(1993)에서도 가장 많은 오류는 저자명에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고 Mo 등(1999)의 연구에서도 저자명과 제목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대오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오류는 제목에서 나타났으나, 국내의를 비교해 볼 때 국외 저자명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점은 외국의 저자 인용시 last name이나 이니셜순서 기재시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오류율을 비교한 것을 살펴보면 Mo 등(1999)의 연구와 Byeon(1996)의 연구에서 모두 국외문헌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와 부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문헌 인용시 특히 오류를 많이 나타내는 저자명이나 제목 기재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수와 오류율을 보면 Mo 등(1999)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참고문헌수와 오류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참고문헌의 수와 논문의 길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용한 참고문헌만을 정확하게 규정된 참고문헌 수 안에서 기재하도록 해야 하겠다.

연구논문을 발표할 때 저자, 편집자, 발행인 및 논문 심사자들 모두 참고문헌에 대한 상호의식을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참고문헌의 인용과 표기의 정확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의 결과로 학술지의 Impact factor와 질

적 수준이 향상되어져 간호학과 관련학문의 발전 역시 함께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한 학문의 연구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지는 게재되는 논문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참고문헌을 투고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그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여러 학술지에서 참고문헌의 인용에 관한 오류를 중심으로 한 결과를 제시하여,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 간호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참고문헌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학술지 중 가장 대표적인 대한간호학회지를 통하여, 인용된 참고문헌의 현황과 정확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참고문헌 인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2년에 발간된 총 7권의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93편의 논문에서 2,334개의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학회지 한 권당 평균 13편의 논문을 읽고, 논문 한편당 25개의 참고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은 국외 정기간행물-국내 정기간행물-국의 단행본-국내 학위논문-국내 단행본-기타-국외 학위논문-web-site의 순으로 많이 인용하였으며, 국내 정기간행물 중에서는 대한간호학회지를, 국외 정기간행물 중에서는 Nursing Research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1990년대의 문헌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2. 참고문헌의 인용오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334개의 참고문헌 중에서 단행본과 기타를 제외한 1,836개의 문헌을 검색하여, 원문입수나 서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39개(83.8%)로 나타났다. 검색여부와 관계없이 분석한 2,289개의 문헌 중에서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것은 267개로 11.7%였고, 나머지 2,022개(88.3%)는 오류의 정도에 관계없이 한 항목 이상의 오류를 나타내었다.
 - 1) 검색된 정기간행물에서 검색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오류 항목만으로 오류율을 살펴보면 전체 1,316개의 36.8%인 484개에서 오류를 나타내었고 제목이 원본과 다른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소오류 항목 중에서는 권의 표기시 기울이기를 하지 않은 오류가 가장 많았다.

- 2) 인용된 정기간행물의 오류정도는 국내 425건 (30.6%), 국외 964건(69.4%)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0$), 국내문헌을 인용할 때보다 국외문헌 인용시 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행본이나 web-site에서는 오류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국내문헌이나 국외문헌을 인용할 때 범하는 오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참고문헌수와 오류정도와 상관성
참고문헌수와 오류정도는 약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093$, $p=0.000$).

연구정기간행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국외문헌의 경우 검색자가 다양하여 저자의 이니셜이나 정기간행물명은 물론 권, 호 또는 시작 페이지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참고문헌에 대한 접근도가 훨씬 높은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자료 검색시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여 접근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본 논문에서 검색물에 있어서는 국내의 문헌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국외 정기간행물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국내 정기간행물을 찾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검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항목인 저자명이 성(姓)과 이니셜로 표기되어있어 그 이름을 짐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 국내 저자명은 성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이니셜이 아니라 모두 쓰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간행물명도 약어로 되어있으면서 지명도가 낮은 경우와 다른 학문분야의 간행물인 경우에는 어떤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없었고, 국내 단행본도 인용시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원본에 영문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영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영문표기와 함께 한글표기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아예 다른 간행물에서처럼 국내문헌은 그대로 한글로 적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기간행물명을 약어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약어가 국외에서 정해져있는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국내 학술지의 경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외의 경우에는 검색을 위한 Journal Browser에 각 학술지의 full name과 약어를 동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둘 중 어느 것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지사항을 입력할 때 약어를 같이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거나, 발간시 표지 부분에 영문표기와 함께 약어도 같이 인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4. 현재 국내 학술지 중에서는 대한간호학회지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MEDLINE에도 등재가 확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외국에서도 많은 인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다른 논문에 해당학술지가 얼마나 인용되는가를 나타내는 Impact factor를 높이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참고문헌을 표기하도록 연구자나 심사위원들이 투고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아가 SCI에 등재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 한국 간호학계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 여겨진다.
5. 본 연구는 참고문헌 목록에 나타난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용현황과 정확도를 살펴보았으나, 본문 내용 중에 인용된 문헌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와 언어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PA (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ifth Edition*. Washington D.C.: APA Press.
- Benning, S. P., & Speer, S. C. (1993). Incorrect citations: a comparison of library literature with medical literature. *Bull Med Libr Assoc*, 81(1), 56-58.
- Byeon, J. J. (1996). Accuracy of reference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J Korean Acad Fam Med*, 17(2), 1385-1391.
- Doms, C. A. (1989). A survey of Reference accuracy in five national dental journals. *J Dent Res*, 68(3), 442-444.
- Eichorn, P., & Yankauer, A. (1987). Do authors check their reference? - A survey of accuracy of references in three public health journals.

Am J Public Health, 77(8), 1011-1012.

Foreman, M. D., & Kirchoff, K. T. (1987). Accuracy of reference in nursing journals. *Res Nurs Health*, 10(3), 177-183.

George, P. M., & Robbins, K. (1994). Reference accuracy in the dermatologic literature. *J Am Acad Dermatol*, 31(1), 61-64.

Hansen, M. E., & McIntire, D. D. (1994). Reference citation in radiology: accuracy and appropriateness of use in two major journals. *Am J Roentgenol*, 163(3), 719-723.

Hinchcliff, K. M., Bruce, N. J., Powers, J. D., & Kipp, M. L. (1993). Accuracy of references and quotations in veterinary journals. *J Am Vet Med Assoc*, 202(3), 397-400.

McLellan, M. F., Case, L. D., & Barnett, M. C. (1992). Trust, but verify: the accuracy of references in four anesthesia journals. *Anesthesiology*, 77(1), 185-188.

Mo, H. J., Kim, Y. T., & Kim, J. W. (1999). Reference accuracy in major Korean journals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Korean J Obstet Gynecol*, 42(5), 1059-1064.

Nam, S. H., Eo, K. S., & Hwang, I. H. (1993). On analysis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J Korean Acad Fam Med*, 14(1), 46-52.

Russell, C. L., & Aud, M. A. (2002).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5th edition: a review of additions and changes in style requirements. *Nurs Res*, 51(5), 332-335.

Schulmeister, L. (1998). Quotation and reference accuracy of three nursing journals. *Image J Nurs Sch*, 30(2), 143-146.

Seong, H. K., Lee, O. H., & Yu, H. K. (1994). Analysis of articles and citations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8(5), 692-703.

Stull, G. A., Christina, R. W., & Quinn, S. A.

(1991). Accuracy of references i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Res Q Exerc Sport*, 62, 245-248.

Taylor, M. K. (1998). The practical effects of errors in reference lists in Nursing Research journals. *Nurs Res*, 47(5), 300-303.

- Abstract -

The Citation Status of the Reference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Lee, Hyang Yeon*Chun, Sang Hee***

*Chang, Kyung Wha**Lee Myung Hee***

*Park, Young Mi**Ji, Eun Sun***

*Lee, Jong Yul***Lee, Sang Bok**Rho, In Suk***

Purpose: This is for analyzing the recent citations from papers enroll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understanding correct marking of references. **Method:** Targeted 2,334 references in 93 articles introduced from Feb. 2002 to Dec. 2002 which are applied current contribution rule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Result:** 1. 25 references are quoted per article and particularly foreign journals are most frequently quoted. Among foreign journals, Nursing Research is most frequently used.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is also mostly referred material among national journals. 2. The retrieval rate is prove to be 1,539(83.8%) and 267(11.7%) are without errors and the other 2,022 have at least more than one error regardless of frequency. 3. Major error rate of periodical publication is 484(36.8%) and most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occurred in the inconsistency of titles between articles and references. 4. Foreign journals have much more errors than national ones concerning periodical publications. **Conclusion:** Correct citation and marking of references can be achieved through strict reviewing process by authors, editors, publishers and paper

investigators. In consequence, it is expected that these processes can cause improvement of quality in impact factor and papers.

Key words : Reference, Publication, Cit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